

광주 중학생 11월 학력평가

시교육청 개청 이래 처음...지역간, 공·사립간 교육 균형발전 도모

국어·영어·수학·과학·사회 5과목

광주시교육청이 개청이래 처음으로 오는 11월 광주지역 모든 중학생을 대상으로 학력평가를 실시한다.

“광주지역 중학생들의 실력이 갈수록 떨어진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은 만큼 학생들의 실력을 정확히 파악해 학력신장 방안을 찾겠다는 의도다. 특히 지역간, 공·사립간 현저하게 드러나는 학교별 실력차이를 줄여 교육의 균형을 발전도를 도모하겠다는 취지다.

시교육청은 평가가 끝난 후 학생·

학교·학교 간 서열을 절대 산출하지 않는다고 공언하고 있지만, 학생 개인은 물론 학교별 순위가 자연스럽게 드러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오는 11월 중 광주지역 중학생을 대상으로 국어·영어·수학·과학·사회 등 5개 과목에 대한 학업 성취도평가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학력평가 실시는 지난 7월 열린 전국 시·도교육감 회의에서 각 교육청 자체적으로 중학생

학력평가를 실시하자는 결정에 따른 것으로 앞으로 매년 실시된다”고 덧붙였다.

그동안 매년 10월 중학교 3학년과 고등학교 1학년을 대상으로 한 국가 수준 성취도평가는 있었지만, 시교육청이 광주지역 중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성취도평가는 지난 1986년 개청 이래 처음 있는 일이다. 현재 경기·도교육청이 자체 성취도평가를 하고 있으며 다른 교육청도 성취도평가를 추진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평가문항 수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으나 평가의 목적이 현재 학생들의

실력이 어느 정도인지 정확히 파악하는 데 있는 만큼 기초에서부터 고난도 문제까지 고르게 출제될 것으로 보인다. 출제는 현재 광주지역 중학교에 근무 중인 각 과목 담당 교사들이 맡는다.

평가결과는 교수·학습방법 개선, 수준별 교육이나 보충학습 운영 등 각 학교 학력 향상 방안 수립을 위한 기초 자료로 쓰일 예정이다.

한편 광주지역 중학생은 국립 1개교, 공립 55개교, 사립 25개교 등 81개교에 7만여명이 재학 중이다. /황태준기자 hwangtae@kwangju.co.kr

현대삼호重 특별안전점검

광주지방노동청장 “사업주 처벌 할 수도 있다”

노동청이 타이크레인 붕괴와 가스 폭발사고가 발생한 영암 현대 삼호중공업에 대해 산업재해 특별안전점검에 나선다.

권영순 광주지방노동청장은 16일 민주노총 광주본부·전남본부 대표들과 가진 면담에서 “노동청 목포지청에서 점검반을 구성해 현대삼호중공업에 대해 특별점검을 하기로 했고, 검찰과 협의를 거쳐 사업주에 대한 처벌도 할 수 있다”고 밝혔다.

현대삼호중공업 노조는 이날 성명서를 통해 “가스 절단호스는 바닥에 놓지 않고 공중에 띄워 훼손과 누수 방지에 대비해야 한다”며 “사고 현장에는 이런 안전조치 없이 구멍난 가스호스가 바닥에 방치돼 있었다”고

사업주 처벌을 요청했다.

민주노총 광주·전남본부도 기자회견을 갖고 현대삼호중공업 등 산업재해 관련 사업주의 구속처벌과 특별근로감독 실시, 광주·전남 전 사업장에 대한 산업보건점검을 요구했다.

한편 현대삼호중공업 가스폭발 사고를 수사중인 영암경찰은 작업반장 채모(38)씨 등 2~3명을 내주 중에 업무상 과실 치사상 혐의로 입건할 방침이다.

현대삼호중공업에선 지난 1일 작업 중 크레인 인접로 2명이 사망한 데 이어, 13일에는 중재공 과정에서 용접용 LPG가스가 폭발해 근로자 1명이 숨지고 10명이 부상을 입었다.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사이버 범죄 74%가 10~20대

광주경찰청 집중 단속

인터넷 물품판매 사기 등 사이버 범죄 10건 중 7건은 10~20대들이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16일 광주경찰청 사이버수사대에 따르면 지난달 13일부터 한 달간 사이버 범죄 집중단속을 통해 입건된 73명(구속 3명 포함) 중 20대가 41명, 10대가 13명으로 전체 73.9%가 10~20대였다. 30대는 15명(20.5%), 40대 이상은 5명(6.8%)에 불과했다.

유형별로는 물품판매를 가장해 물건을 보내지 않고 돈만 챙기는 사기가 51명으로 68%를 차지했고, 인터넷

게임 아이템 사기도 17명(25%)에 달했다. 나머지는 인터넷 대출사기 등이다.

실제 광주 동부경찰서는 지난 4일 인터넷 경매사이트에서 중고 노트북 판매를 미끼로 60여명으로 1천215만 원을 받아 챙긴 고모(27)씨가 사기 혐의로 입건되기도 했다.

경찰 관계자는 “다른 연령층에 비해 인터넷 사용 시간이 많은 청소년들이 범죄에 빠지는 경우가 많다”며 “사이버 명예훼손·개인정보 침해 등의 사이버 범죄도 지속적으로 단속을 펼쳐겠다”고 밝혔다. /이은미기자 emlee@kwangju.co.kr



광주과기원 학위수여식

광주과학기술원은 16일 오후 행정동 1층 대강당에서 2007년 하반기 학위수여식을 가졌다. 수여식에서는 박사 28명, 석사 64명 등 모두 92명이 학위를 받았다.

최혜배기자 choi@kwangju.co.kr

경찰 “안전사고 사망시 책임자 구속수사”

경찰청은 최근 현대삼호중공업 크레인 붕괴 사고 등과 관련, 안전사고에 강력히 대응하라고 광주·전남 등 전국 지방경찰청에 지시했다고 16일 밝혔다.

경찰청은 지시를 통해 ▲각종 안전사고 발생시 수사전담반 편성 ▲관련부처 공조를 통한 철저한 사고원인 규명 ▲관련자 엄정 처벌처리 등을

당부했다.

경찰은 안전사고로 인명 피해가 발생할 경우 주의 의무를 위반한 행위자는 물론 감독자, 회사 관계자, 대표이사까지 철저히 조사해 강력히 처벌하기로 했다.

특히 사망사고가 발생했을 때 주요 책임자에 대해서는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삼도록 했다. /최권익기자 cki@

“화장실 쓰자는 사람 조심!”

아파트 침입 상습절도

고등학생 등 3명 검거

광주 북부경찰은 16일 도심 아파트를 돌며 상습적으로 금품을 훔친 임모(16·부친 B고 1년)군 등 3명을 절도 혐의로 붙잡아 조사 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달 20일 오후 2시30분께 광주시 북구 용봉동 K아파트 이모(40)씨

의 집에서 시가 323만원 상당의 금목걸이와 금반지를 훔쳐 달아나는 등 지난달 초부터 최근까지 총 11차례에 걸쳐 광주 시내 아파트를 돌며 1천500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다.

이들은 대낮에 홀로 귀가하는 초등학생들에게 “화장실을 사용하게 해달라. 물을 마시고 싶다”며 접근한 뒤 집에 들어가 이 같은 짓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이중행 기자 golee@kwangju.co.kr

‘일심회’ 장민호씨

향소심서 징역 7년

일심회를 조직해 복합의 지령을 따른 혐의(국가보안법 위반)로 구속된 장민호(45·미국명 장마이클)씨가 향소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3부(심장철 부장판

사)는 16일 일심회 총책 장씨에게 징역 7년과 자격정지 7년, 추징금 1천 900만원을 선고하고 이경훈씨와 손정복씨에게는 각각 징역 3년과 징역 4년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이진강씨에게는 징역 3년, 최기영 민주노동당 전 사무부총장에게는 징역 3년6월이 선고됐다. /연합뉴스

다들 걱정하는 산업재해 KCC

DS건설(주) KCC건설, 연세, 도원, 대우

KCC방호, 시스텔방호 생산·시공

(주)본드나리 KCC방호, 연세, 도원, 대우

실리콘·방수제·합착제·타이브

두 색깔의 눈동자 가진 진돗개

상나팔

○해남의 한 사찰에서 두 눈 색깔이 서로 다른 진돗개가 있어 세간의 관심.

○해남군 마산면 은적사 관계자 등에 따르면 진돗개와 시베리안 허스키의 교배 종으로 이 절의 ‘심검당’

(壽劍堂)을 지키는 진돗개 ‘심검(사진·생후 7개월)’의 오른쪽 눈동자는 갈색, 왼쪽은 푸른빛을 띠는 희색으로 허스키의 눈동자와 닮았다고. ○주지인 삼각 스님은 “결모습은 진돗개지만 짖을 때 늑대 울음소리를 내는 등 썰매 견의 특징을 보인다”고 설명. /해남=박정욱기자 jopark@

RODEM 픽수업 맨션 전문매장

로댐갤러리 신제품출시

로댐갤러리

RODEM

30%~50%

마술 (Magic) 무료 수강생 모집

마술 (Magic) 무료 수강생 모집

마술 (Magic) 무료 수강생 모집

도로교통사고감정사

도로교통사고감정사

도로교통사고감정사

도로교통사고감정사

도로교통사고감정사

도로교통사고감정사